

성별에 따른 청바지 착용자의 의복행동 차이

이정숙¹⁾ · 성수광²⁾

1) 창원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

2)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전공

A Difference of Clothing Behavior of Jean's Wearer According to the Gender

Joung-Suk Lee, Su-Kwang Sung

1) Dept. of Fashion Design, Changwon College, Changwon, Korea

2)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kyungsan, Daegu, Korea

Abstract : This is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jeans, colors, images, opinions when it was purchased, shap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persons in jeans. According to the gender, male students had 1.64 jeans(46.3%) and female students had 2.09 jeans(53.7%) on the average. Male students selected colors of jeans which they don't have, but want to wear once in the order of blue(3.7%), red(21.0%), white(24.1%), black(25.6%), and others(25.6%). Female students selected colors in the order of blue(3.2%), black(15.6%), red(24.8%), white(27.7%) and others(25.6%). In case of the general image about jeans, male students thought the jeans as masculine(1.2%), sexy(3.1%), unisexual(3.2%), active(23.6%), young(29.8%), and comfortable(36.5%) and female students thought it as masculine(0.3%), sexy(3.5%), unisexual(10.4%), young(21.9%), comfortable(28.1%) and active(35.8%). Male students considered torn or holed jeans ill-mannered(10.7%), delinquent, (20.7%)trendy(21.0%), comfortable(22.9%), and dandy(24.7%). Female students think it ill-mannered(3.4%), delinquent(7.1%), trendy(17.4%), comfortable(21.1%), and dandy(50.9%). When they purchase jeans, male students choose according to trends(17.9%), don't consider design(19.5%) and look for their own styles(62.6%), female students didn't consider design(5.2%), choose according to trends(22.0%), and look for their own styles(72.5%). The designs of jeans which they usually wear were bell bottom(1.5%), wide-shaped(7.4%), baggy(17.5%), straight-shaped(73.6%) in case of 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female students, baggy(10.2%), wide-shaped(11.0%), bell bottom(17.0%), and straight-shaped(61.8%). The designs of jeans which they didn't have but want to wear once are wide-shaped(10.1%), bell bottom(13.2%), baggy(20.9%), and straight-shaped(55.2%) in case of 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females students want to wear baggy(11.6%), wide-shaped(15.0%), straight-shaped(27.6%), and bell bottom(45.8%).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llustrated that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regarded blue as the original color of jeans, but they wanted to wear jeans in colors other than blue. In the past, jeans were considered masculine and unisex, but they viewed jeans as an apparel that was comfortable to wear and made it easier to move. Female students had a higher tendency to be fashionable than male students, and their preference for jeans was consequently different. Jeans manufacturers should take those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to produce products in different colors and form.

Key words : Jean slacks, clothing behavior

1. 서 론

청바지는 1850년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에 의해 작업복의 형태로 만들어져 출발하였으나, 20세기의 변화된 생활양식과 남녀평등을 상징하는 사고방식이 패션에 반영된 대표적인 유니섹스의 의복으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청바지는 처음 젊은층을 중심으로 착용되었으나 지금은 폭넓은 연령층에서 착용하는 의복이다.

또한 청바지는 많은 남녀학생들이 가장 편안하게 착용하는 의복으로 자리 잡았고, 1980년 중반 이후 고급화되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고가의 디자이너 청바지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청바지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착용되지만, 젊은층의 수요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아 대부분의 기성복업체는 젊은 연령층에 맞추어 청바지를 생산한다. 현재 시중에 나오는 청바지는 유행에 따라 이들의 신체치수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형태가 결정되어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녀학생은 신체적인 조건과 유행에 대한 수용태도가 달라 성별에 따른 청바지 색상, 구입의 의견 및 착용하거나 구입하고 싶은 청바지의 형태 등에 관한 의복행동의 비교는 국내 청바지 생산업체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청바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

님의복에 관한 의복행동(정삼호·강혜원, 1977), 의복관심과 패션디자인 선호도(정삼호, 1984)에 관한 연구와 청바지의 착용태도 및 구매행동에 관한 마케팅적 연구(박원선·이선재, 1999) 및 의복의 정숙성, 성역할(강경자, 2001; 원미숙·강혜원, 1983)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작업복에서 출발한 청바지가 사회문화와 관련한 미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녀학생에게 미친 의복행동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청바지 업체의 디자인에 도움을 주며, 성별에 따른 청바지의 소유갯수, 색상, 이미지, 구입시 의견, 형태 등의 차이를 비교하여 청바지생산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바지의 착용이 가장 많은 18~23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750부를 회수한 후 통계처리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709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Table 1) 이용하였다.

남녀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청바지 갯수와 대표적인 청바지의 색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입어보고 싶은 청바지의 색, 전형적인 청바지와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 청바지 구입시 청바지형태 선택에 관한 의견, 착용하는 청바지의 형태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착용해 보고 싶은 청바지의 형태에 관한 것을 조사 내용으로 하였다.

Table 1. 기초자료 unit:N(%)

성별	출생년도
M 332(46.4)	A1 158(22.2)
F 384(53.6)	A2 130(18.3)
	A3 244(34.3)
	A4 180(25.3)

M: 남자고등학생과 대학생 F: 여자고등학생과 대학생

A1: 1980년도 이전 A2: 1981~1982년도

A3: 1983~1985년도 A4: 1986년도 이후

2.2. 자료분석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통계팩키지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바지소유갯수는 t-test검정을 실시하였고, 청바지의 색상·이미지·구입시 의견·형태 등을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4.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쯤 입어보고 싶은 청바지의 색상 unit:N(%)

	파랑색(blue)	검정색(black)	빨강색(red)	흰색(white)	기타	χ^2 분석 P-value
남	12(3.7)	83(25.6)	68(21.0)	78(24.1)	83(25.6)	11.50**
여	12(3.2)	59(15.6)	94(24.8)	105(27.7)	109(28.8)	

**p< 0.01

3. 결과 및 고찰

3.1. 성별에 따른 청바지의 갯수

Table 2는 성별에 따른 청바지의 소유갯수를 나타낸 것으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남학생은 평균 1.64개(46.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평균 2.09개(53.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학생이 1.64~2.09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대~30대의 학생, 직장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박원선·이선재, 1999)에서 남녀 모두 3~4벌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보고와 차이를 보인다. 설문지 조사대상자 중 교복을 착용하는 남녀고등학생이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남녀대학생과 비교하여 평상복을 입을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보다 다른 디자인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 소유하고 있는 청바지의 갯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3.2. 청바지의 색상

Table 3은 남녀학생들이 생각하는 청바지를 대표하는 색상을 나타낸 것으로, 청바지를 상징하는 색상을 파랑색이라고 답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바지의 형태는 세월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변화했지만, 청바지의 파랑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이 없이 청바지를 대표하는 색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디고 염료로 선명한 경사와 염색되지 않은 위사로 짜여진 농직의 데님직물이 갖는 독특한 직조방법에 의한 파랑이 세월과 유행의 변화에도 지금까지 조사대상자인 남녀학생들에게도 청바지를 대표하는 색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성별에 따른 청바지의 소유갯수 unit:N(%)

	N	M±SD	t-value
남	328(46.3)	1.64±0.63	-10.03***
여	381(53.7)	2.09±0.56	

***p< 0.001

Table 3. 청바지를 대표하는 색상 unit:N(%)

	파랑색(blue)	검정색(black)	빨강색(red)	흰색(white)	χ^2 분석 P-value
남	289(88.1)	30(9.1)	2(0.6)	7(2.1)	10.76
여	364(94.8)	14(3.6)	1(0.3)	5(1.3)	

3.3. 착용 희망 청바지 색상

Table 4는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쯤 입어보고 싶은 청바지의 색상을 나타낸 것으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남학생은 파랑색(3.7%)<빨강색(21.0%)<흰색(24.1%)<검정색(25.6%), 기타(25.6%)의 색상 순으로, 여학생은 파랑색(3.2%)<검정색(15.6%)<빨강색(24.8%)<흰색(27.7%)<기타(28.8%)의 색상 순으로 한번쯤 입어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는 청바지 색상 중 설문지조사에 사용된 빨강색, 흰색, 검정색 중에서는 남학생은 검정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 청바지의 기존 색상인 파랑색보다는 다양한 색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은 기존의 청바지가 가지고 있는 파랑색보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원하는 것을 보인다.

이들 젊은층은 기존의 세대와는 달리 1980년대의 컬러TV의 보급으로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전환된 시대에 성장하였고, 패션잡지 등의 출판물들의 국제적 유통과 전자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정보교류 등에 의해 길러진 색채감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오면서 청바지패션은 색채와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4. 일반적인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

Table 5는 성별에 따른 청바지에 관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유의수준 $p < 0.001$ 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남학생은 남성답다(1.2%)<섹시하다(3.1%)<유니섹스하다(5.8%)<활동적이다(23.6%)<젊다(29.8%)<편안하다(36.5%) 순으로, 여학생은 남성답다(0.3%)<섹시하다(3.5%)<유니섹스하다(10.4%)<젊다(21.9%)<편안하다(28.1%)<활동적이다(35.8%) 순으로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바지는 과거 서부개척시대의 남성적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세계 2차 대전 중 여성들이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산업활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점차 청바지의 착용이 확대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에는 유니섹스한 이미지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자

리 잡았다. 현재에는 T.P.O의 전통적인 개념을 깨뜨리며 청바지패션은 공식석상에서도 착용되고 있다.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는 정삼호·강혜원(1977)은 데님 의복을 젊음의 상징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 ‘편안하다’, ‘활동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바지를 주로 착용하는 남학생들은 청바지를 편안한 의복으로 생각하며, 스커트 착용이 빈번한 여학생들은 청바지를 활동적인 의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바지제조업체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청바지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찢어지거나 구멍난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

Table 6은 성별에 따른 찢어지거나 구멍난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것으로, 유의수준 $p < 0.001$ 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남학생은 예외에 벗어난다(10.7%)<불량스럽다(20.7%)<유행에 앞선다(21.0%)<편안하다(22.9%)<멋지다(24.7%) 순으로, 여학생은 예외에 벗어난다(3.4%)<불량스럽다(7.1%)<유행에 앞선다(17.4%)<편안하다(21.1%)<멋지다(50.9%) 순으로 찢어지거나 구멍난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들은 찢어지거나 구멍난 청바지를 예외에 벗어나거나 불량스럽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고 멋지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착용의 동기를 논할 때 의복의 정숙성과 심미성은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설명되어왔지만 정숙성과 심미성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며 심미성과는 달리 정숙성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Kefgen and Specht, 1981)고 한다. 또한 인간은 의복착용시 상반된 두 가지 심리를 나타내는데 신체를 노출하고 과시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나체를 가림으로써 정숙성을 가능케 해주는 동시에 성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10대, 20대의 학생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널리 입혀지고 있는 찢어지거나 구멍난 청바지는 1990년대 이후의 해체주의의 영향(김소영·양숙희, 1996)으로 바지의 여기저기를 칼로 흠을 내거나 찢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착용한다. 우리의

Table 5. 일반적인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

	젊다	편안하다	활동적이다	섹시하다	남성답다	유니섹스하다	unit:N(%)
남	97(29.8)	119(36.5)	77(23.6)	10(3.1)	4(1.2)	19(5.8)	χ^2 분석 P-value 23.44***
여	82(21.9)	105(28.1)	134(35.8)	13(3.5)	1(0.3)	39(10.4)	

*** $p < 0.001$

Table 6. 찢어지거나 구멍난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

	편안하다	불량스럽다	멋지다	예외에 벗어난다	유행에 앞선다	unit:N(%)
남	75(22.9)	68(20.7)	81(24.7)	35(10.7)	69(21.0)	χ^2 분석 P-value 70.48***
여	80(21.1)	27(7.1)	193(50.9)	13(3.4)	66(17.4)	

*** $p < 0.001$

전통적인 관념에서 찢어지거나 구멍난 형태의 바지를 규제하는 제도적인 규제는 없으나 불량스럽거나 예의에 벗어난다하여 무언의 규제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은 유교적 문화와 전통적인 가치관보다는 서구적 문화와 근대적 가치관에 익숙한 세대로 성장하였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의복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우리사회의 보수적 가치관의 표현인 의복에서의 정숙성의 개념이 약화되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6. 청바지 구입시 선택요인

Table 7은 청바지 구입시 성별에 따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유의수준 $p < 0.001$ 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남학생은 유행에 따라 선택한다(17.9%)<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19.5%)<나만의 스타일을 찾는다(62.6%) 순으로, 여학생은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5.2%)<유행에 따라 선택한다(22.0%)<나만의 스타일을 찾는다(72.5%) 순으로 청바지 구입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바지 구입시, 남녀학생 모두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학생은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이며, 여학생은 '유행에 따라 선택한다'로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남학생(19.5%)이 여학생(5.2%)보다 높은 퍼센트를 보여줌으로써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행을 덜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청바지의 형태

Fig. 1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의 대표적인 일자형태의 바지, 무릎을 중심으로 아래로 갈수록 통이 넓어지는 벨보텀형태의 바지, 허리부위에 풍성하게 주름이 잡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배기형태의 바지, 엉덩부위에서 아래로 내려 갈수록 통이 넓어지는 통바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착용하는 청바지 형태 : Table 8은 주로 착용하는 청바지의 형태를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유의수준 $p < 0.001$ 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남학생은 벨보텀형태(1.5%)<통바지형태(7.4%)<배기형태(17.5%)<일자형태(73.6%) 순으로, 여학생은 배기형태(10.2%)< 통바지형태(11.0%)<벨보텀형태(17.0%)<일자형태(61.8%) 순으로 주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청바지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일자형태의 바지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학생은 허리부분에 주름이 많이 잡혀 편안한 형태인 배기 형태의 바지를 즐겨 착용하며 여학생은 무릎 아래로 내려갈수록 통이 넓어지는 벨보텀 형태의 바지를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보텀 형태의 바지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하게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착용해 보고 싶은 청바지 형태 : Table 9는 소유하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착용해 보고 싶은 청바지의 형태를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유의수준 $p < 0.001$ 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남학생은 통바지형태(10.1%)<벨보텀형태(13.2%)<배기형태(20.9%)

Table 7. 청바지 구입시 의견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유행에 따라 선택한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다	χ^2 분석 P-value
남	64(19.5)	59(17.9)	206(62.6)	35.10***
여	20(5.2)	84(22.0)	277(72.5)	

*** $p < 0.001$

Table 8. 주로 착용하는 청바지의 형태

	일자형태	벨보텀형태	배기형태	통바지형태	χ^2 분석 P-value
남	240(73.6)	5(1.5)	57(17.5)	24(7.4)	55.67***
여	236(61.8)	65(17.0)	39(10.2)	42(11.0)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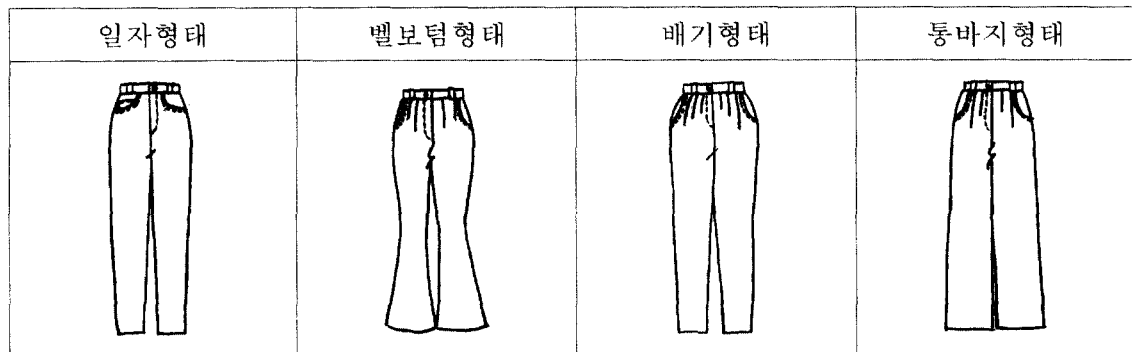


Fig. 1. 슬랙스 형태.

Table 9.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착용해 보고 싶은 청바지의 형태

	일자형태	벨보텀형태	배기형태	통바지형태	χ^2 분석 P-value
남	180(55.2)	43(13.2)	68(20.9)	33(10.1)	108.87***
여	105(27.6)	174(45.8)	44(11.6)	57(15.0)	

***p<0.001

<일자형태(55.2%) 순으로, 여학생은 배기형태(11.6%)<통바지형태(15.0%)<일자형태(27.6%)<벨보텀형태(45.8%) 순으로 착용해 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착용해 보고 싶은 청바지형태는 남학생은 전형적인 청바지 형태인 일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벨보텀형태의 청바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청바지 구입시 유행을 고려하는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청바지 착용자의 성별에 따른 소유갯수, 색상, 이미지, 구입시 의견, 형태 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에 따른 청바지의 평균 소유갯수는 남학생은 1.64개(46.3%), 여학생은 2.09개(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학생들은 대표적인 청바지의 색상을 파랑색이라고 답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쯤 입어보고 싶은 청바지의 색상으로 남학생은 파랑색<빨강색<흰색<검정색, 기타의 색상 순으로, 여학생은 파랑색<검정색<빨강색<흰색<기타의 색상 순으로 나타났다.

3. 청바지에 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남학생은 남성답다<섹시하다<유니섹스하다<활동적이다<짤다<편안하다 순으로, 여학생은 남성답다<섹시하다<유니섹스하다<짤다<편안하다<활동적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4. 찢어지거나 구멍난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는 남학생은 예의에 벗어난다<불량스럽다<유행에 앞선다<편안하다<멋지다 순으로, 여학생은 예의에 벗어난다<불량스럽다<유행에 앞선다<편안하다<멋지다 순으로 찢어지거나 구멍난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청바지 구입시 남학생은 유행에 따라 선택한다<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나만의 스타일을 찾는다 순으로 여학생은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유행에 따라 선택한다<나만의 스타일을 찾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6. 주로 착용하는 청바지의 형태는 남학생은 벨보텀형태<통바지형태<배기형태<일자형태 순으로, 여학생은 배기형태<통바지형태<벨보텀형태<일자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7. 소유하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착용해 보고 싶은 청바지의 형태는 남학생은 통바지형태<벨보텀형태<배기형태<일자형태 순으로, 여학생은 배기형태<통바지형태<일자형태<벨보텀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남녀학생들 모두 청바지 고유의 색을 파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입어보고 싶은 청바지 색은 파랑이외의 다른 색상도 원하며, 과거의 남성적이고 유니섹스하다는 청바지의 이미지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의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과 비교하여 유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 선호하는 청바지 형태가 남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청바지생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색상 및 형태의 청바지를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경자 (2001) 1990년대 신세대의 의복 정숙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1(3), 141-153.

김미수·이경희 (1995) 진의류의 제품지각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19(1), 23-35.

박우미 (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한국복식학회지*, 48, 25-36.

박원선·이선재 (1999) 청바지의 착용태도 및 구매행동에 관한 마케팅적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43, 109-124.

원미숙·강혜원 (1983)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한국 의류학회지*, 7(2), 37-44.

정명선 (1984) 남녀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85-94.

정삼호 (1984) 부산시 여대생의 의복관심과 패션디자인 선호도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1), 43-51.

정삼호·강혜원 (1977) 데님의를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 7-12.

김소영·양숙희 (1996) 진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반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4), 573-585.

Kefgen M. and Specht P.T. (1981)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3rd Ed., Mcmilan Publishing Company, N.Y., pp.68-70.

William G. and Roberto M. (1992) Sportswear International. Cult. Verlag AG. 34.

(2003년 1월 29일 접수)